

세대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세대교류 공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복지관을 중심으로

Intergenerational Programs and Space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n Integrated Welfar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박혜선 Park, Hae-Sun* | 안태윤 Ahn, Taeyoon**

Abstract

South Korea's rapid ageing and the fast increase of nuclear families have led to the social isolation of the elderly and generational conflicts.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in which different generations can communicate and interact more actively. We surveyed 110 social workers who run generation-integrated programs at community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and also examined the spatial design of the four age-integrated community centers and analysed its effect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We propose several suggestions for intergenerational exchange programs and effective space planning to facilitat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n multi-generational community centers. To develop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and keep their constant relationship, the users of community centers should be the core of generation-integrated programs which can facilitate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interactions.

키워드 세대교류, 복지관, 고령화, 세대간 갈등, 사회적 고립, 세대통합 프로그램

Keyword Intergenerational Exchange, Multi-generational Community Center, Ag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s, Social Isolation, Generation-integrated 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전통사회와 같이 노인들이 대가족 안에서 가족의 중심이 되어 여생을 보내고, 아이들은 조부모의 보호와 훈육아래 성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가 뒤따랐으며, 최근에는 만혼화와 저출산,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의 세대별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노인층의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단절과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간 단절과 노인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10여 년 전부터 세대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다수의 복지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운영실태, 그리고 세대교류를 위한 공간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아서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세대교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공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교류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육, 노인복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건축분야에서도 공간을 함께 다루며 접근하고 있다.¹⁾ 복지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세대교류 프

*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부교수, 건축학박사, 주저자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본 논문은 2011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의 일부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논지를 정리, 발전시킨 것임.

1) 박혜선(2008)은 노인인 유아의 복합시설에서 세대교류를 촉진할 수

로그그램을 통해 1·3세대간 교류 기회가 증가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세대교류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건축분야에서는 세대간 교류가 공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접촉과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교류를 공간과 연결시켜 세대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및 배치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세대교류 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자들을 통해 세대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사관련 프로그램의 유무와 빈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 효과 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채, 공간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시설운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현장방문과 참여관찰 등을 통해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운영과 실태파악에 집중했다. 이와 더불어 세대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시설 계획 시 세대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복지시설의 세대교류 활성화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종류와 실시현황 및 공간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조사와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가자 특성, 운영자의 인식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세대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세대교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교류행위와 공간배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세대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과 세대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110개 기관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관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8월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를

있는 공간배치와 교류공간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2009년 여성건축가협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세대간 소통을 위한 노유복합시설의 건축환경연구'에서는 노인과 유아 및 아동시설이 동일 건물이나 동일 대지 내에 지어진 시설을 노유복합시설이라 정의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시설 형태라는 인식 하에 일본의 선진적인 노유복합시설의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53개 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은 57개 기관이다. 설문은 각 시설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인터넷으로 배부되었고 2011년 7월 18일~29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64부(응답률 58.2%)가 회수되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설문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구분(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치/소재지/설립연도/설립유형 직원 수, 물리적 환경 현황(시설 설치유형)
세대통합 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현황 : 실시 여부/ 참여 노인의 참여 경로/ 프로그램 수 및 내용(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 자체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행 기간/ 시행 횟수/ 참여 노인 연령대·인원수·특성/ 참여 아동·청소년(3세대), 부모(2세대)별 연령대·인원수/ 프로그램별 담당 인력·예산액·예산 종류/ 참가자 반응(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자체프로그램)/ 사업목표 및 성과 프로그램 실시하지 않는 이유/ 운영상 어려움/ 활성화 방안/ 정책지원 욕구
공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세대간 상호작용 / 상호작용의 장소 세대교류 위한 전용공간 존재 여부/ 전용공간의 필요성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직책/ 현 기관 근무경력/ 세대통합프로그램 관련 담당 경력

2) 현장 방문조사

현장 방문조사는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외부 및 이용자 간의 교류현황을 관찰하고, 실무담당자들을 인터뷰하였으며, 도면자료 등을 입수하여 시설현황과 평면구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설방문 및 인터뷰는 2011년 7월 25일~8월 8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시설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 노블카운티의 삼성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이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현장 방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시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위치, 건물 건립연도, 건물규모 및 면적, 운영 주체, 시설 개원 연월일 시설 정원 및 이용 정원 시설 면적, 시설 이용자 특성
시설 배치	각 층의 시설 구성
세대교류 실태	세대교류 프로그램 운영현황

1.3 세대교류의 이론적 배경

1) 세대교류의 정의 및 필요성

세대교류란 아동, 청소년, 중년, 노인 등 모든 세대가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 기술 등을 내어놓아 자신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를 실천하는 활동이다(안

태운 외, 2011:15). 세대교류는 현대와 같이 1인 가구와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여 노인층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아동은 노인들과의 접촉의 감소로 세대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대교류는 아동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선시키고, 노인세대에게는 노후생활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에의 의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다. 나아가 세대교류는 세대간 분리와 단절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세대교류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노인과 유아의 교류활동에 있어서 노인의 유아에 대한 이해부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보고한 연구(석은조, 김병근, 2009)가 있으나, 활동 이전의 사전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이다.

2)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세대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한준상 외, 2000).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대상과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에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젊은 세대를 위해 자원봉사 형태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우. 둘째,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셋째, 노인 세대와 기타 세대가 함께 상호 교류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여가 중심, 봉사 중심, 교육 중심적 활동이 있다(한정란, 2001; 안태운 외, 2011:29)

3) 복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현재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대교류 프로그램은 가족 결연, 전통문화지도사 파견사업, 구강관리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노인과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부모세대(2세대)까지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기여를 증진시키고,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으며, 복지관 자체에서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들³⁾을 노인일자리사

업에 포함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사례와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사례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표 3, 4)

[표 3] 노인일자리사업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시설명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파견사업	성남시 만이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놀이, 전래동화 등 분야별 전문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실시 사업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자조모임과 역동 강화 프로그램 지원
수원시 노인회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떠나는 입속 이야기 여행(구강관리지킴이 사업)	수원시 만이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구강관리에 관한 이론교육 및 소양교육 전화상담, 봉사활동 지원
부천시 노인회관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소중한 우리환경인식 교육 프로그램	부천시 만이 55세 이상(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관련교육, 환경 관련 체험 및 연수회, 보수교육 유아교육기관 내 환경교육 수업, 환경캠페인활동

[표 4]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시설명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고양시노인종합복지관	1·2·3세대통합가족사랑 나눔 프로그램 II	덕양구 거주 노인 고등학교 학부모와의 2:1 결연	세대 간 의사소통훈련, 노인 가상체험, 임종체험, 결연가정의 가훈 만들기, 재가노인 가정 방문하기, 생신상 차려드리기, 가족 나들이 등
성남시 노인회관	우리들 다 운 동행	성남시 중·고등학교 학생 20명만 60세 이상 노인 10명	노인 역량 강화 교육,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노인과 청소년의 활동 매칭 등
남양주 노인회관	세대행복나눔 프로그램	경로당 회원 30명과 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기~6회기 자기소개 나눔, Happy together(보드게임), 간식 만들기, 정리정돈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
	친구만들기 V(1·3세대 화해 프로그램)	지역 노인과 청소년 각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활동, 배움 활동, 나눔 활동을 시행 짜꿍 맷기, 포크댄스, 영화관람, 자원봉사, 도시락 만들기, 고무마 캐기, 캠페인 활동, 전통놀이 등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말농장 3세대가족결연 프로그램	독거노인 15명 가족자원봉사자 15명	독거노인과 자원봉사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주말농장 함께 가꾸기, 결연가족나들이 등
파주시 노인회관	어르신 핸드폰교육	지역노인 15명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진행 핸드폰교육은 1:1 짜꿍을 맷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구성

2. 조사대상의 특성과 세대교류현황 분석

경기도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110개 기관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관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64개 기관에 관한 일반적 특성과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세대교류공간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세대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3) 「2010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2」, 2010, 경기복지재단, 「세대통합프로그램 우수운영사례집」, 2010,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각 복지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2.1. 조사대상 기관의 시설 특성

설문에 응답한 총 64개 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이 40개소(62.5%)이고 노인복지관이 24개소(37.5%)였다. 조사대상 기관의 시설 병설 현황(표 5)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함께 설치된 기관이 34개소(28.3%)로 가장 많았다. 그 중 노인복지관에는 24개소 중 3개소(12.5%)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40개소 중 31개소(77.5%)가 설치되어 있다. 놀이방은 전체 5개의 기관(4.2%)만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과 같은 아동시설의 경우는 총 31개 기관(25.8%)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시설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은 30개소가, 노인복지관은 1개소만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3/4정도가 노유복합시설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관 건물 외에 다른 시설은 병설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12개소 모두가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은 이용대상자가 노인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기관이 설치된 배치유형을 살펴보면, 동일대지 상의 하나의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42개소(6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복지관이 같은 필지 내에 위치하지 않고 별도의 대지에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경우가 8개소(12.3%)로 그 중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7개소)이었다.

[표 5] 기관별 시설 병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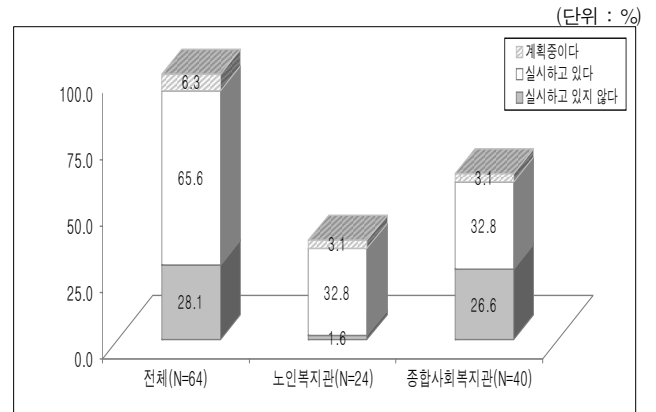
구분	전체 (N=64)		노인복지관 (N=24)		종합사회복지관(N=40)		
	개소	%	개소	%	개소	%	
시설 병설 여부	어린이집	34	28.3	3	2.5	31	25.8
	놀이방	5	4.2	1	0.8	4	3.3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 등)	31	25.8	1	0.8	30	25.0
	청소년 시설	6	5.0	1	0.8	5	4.2
	여성 시설	2	1.7	-	0.0	2	1.7
	주민자치 센터	6	5.0	1	0.8	5	4.2
	건강가정지원센터	2	1.7	-	0.0	2	1.7
	기타	22	18.3	8	6.7	14	11.7
	없음	12	10.0	12	10.0	-	0.0
	합계	120	100.0	27	22.5	94	78.3
설치 유형	별도의 대지에 별도의 건물	8	12.3	1	1.5	7	10.8
	동일대지에 별도의 건물	3	4.6	1	1.5	2	3.1
	동일대지에 하나의 건물 안	42	64.6	10	15.4	32	49.2
	기타(없음)	12	18.5	12	18.5	-	0.0
	합계	65	100.0	24	36.9	41	63.1

4) 노유복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과 아동복지관 등의 아동시설이 노인시설과 동일대지, 혹은 동일건물에 축조되거나 병설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혜선, 2009: 52)

2.2.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현황

1)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

전체 기관 중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42개소(65.6%)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 18개소(2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기관도 4개소(6.3%) 있었다(그림 1). 노인복지관은 대부분(21개소, 87.5%)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1/2(21개소, 52.5%)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1]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시 현황

2)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현재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18개의 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이 17개소(94.4%)로 노인복지관 1개소(5.6%)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7.8%, 5개소)라는 응답과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으기 어려워서(22.2%, 4개소)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실시할 공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11.1%, 2개소)은 소수였다(표 6).

[표 6]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	27.8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으기 어려워서	4	22.2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산이 부족해서	2	11.1
프로그램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서	1	5.6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해서	2	11.1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워서	3	4.7
기타 (다른 사업 실시 예정)	1	5.6
합계	18	100.0

3)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종류

조사기관 중 42개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크게 노인일자리사업과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경로

당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수를 구분하여 살펴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복지관 자체에서 진행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각각 27개, 경로당 사업과 관련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6개, 기타 사업은 3개로 나타났다(표 7).

[표 7]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	기관 수 (개소)	비율 (%)
해당 없음 (계획 중 이거나 실시하지 않는 기관)	22	34.4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14	21.9
노인일자리사업	12	18.8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8	12.5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경로당 사업	3	4.7
노인일자리사업, 기타	2	3.1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경로당 사업, 기타 프로그램	1	1.6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경로당 사업	1	1.6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사업	1	1.6
합계	64	100.0

4) 프로그램의 필요성

조사에 응답한 기관들은 대부분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45개소, 70.3%)을 보였고,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은 29.7%(19개소)로 나타났다(표 8).

[표 8]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바람직하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	70.3
바람직하지만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19	29.7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	-
합계	64	100.0

5) 프로그램 운영관련 어려움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지역복지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프로그램 실행 예산의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각각 2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프로그램 실행 공간 부족이란 의견도 6.3% 있었다(표 9).

2.3. 세대교류의 발생 및 공간 현황

1) 세대교류 발생 빈도와 장소

각 기관별로 세대통합 프로그램 외에 1·3세대 간 인사하기, 손 흔들기,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상호 접촉과 교류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연 1~2회 포함)의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고, 주

1~2회라는 응답이 18.8%, 월 1~2회가 14.1%의 순으로 나타나 복지관 내 세대교류 발생 빈도는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표 10).

[표 9]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어려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프로그램 실행 예산의 부족	17	26.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17	26.6
노인의 참여 저조	9	14.1
프로그램 실행 인력의 부족	6	9.4
프로그램 실행 공간의 부족	4	6.3
아동·청소년 등 2·3세대의 참여 저조	4	6.3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3	4.7
타 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의 협조 및 연계의 어려움	2	3.1
기타	2	3.1
합계	64	100.0

[표 10] 세대교류 발생 빈도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거의 매일	8	12.5
주 1회 ~ 2회	12	18.8
월 1회 ~ 2회	9	14.1
연 1회 ~ 2회	10	15.6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24	37.5
기타(사업 별로 다르나, 월 10회 이상)	1	1.6
합계	64	100.0

세대교류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로는 복지관 출입구나 계단, 복도 등이 23.1%(2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습 공간(도서실, 강의실, 특별활동실, 프로그램실 등) 12.1%, 로비 및 기타가 각 9.9%이며, 휴식 공간(휴게실, 산책로 등) 및 기관 내 식당이 각 6.6%였는데,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6.4%(24개소)로 가장 높았다(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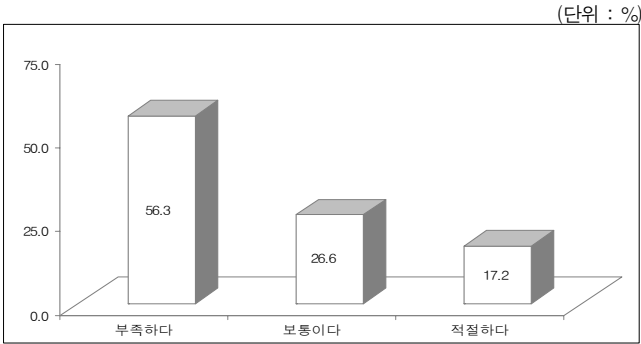
[표 11] 세대교류 발생 장소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4	26.4
복지관 출입구나 계단, 복도 등	21	23.1
학습 공간(도서실, 강의실, 특별활동실, 프로그램실 등)	11	12.1
로비	9	9.9
기타	9	9.9
휴식 공간(휴게실, 산책로 등)	6	6.6
기관 내 식당	6	6.6
모임 공간(강당 등)	5	5.5
체육공간(놀이터, 운동장, 체육실, 수영장 등)	-	-
합계	91	100.0

주 : 중복응답임.

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여건

각 기관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여건이 어떠한 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56.3%)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여건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 1·3세대의 상호교류가 일어나는 특정 시설 여부와 세대교류가 이루어지거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전용공간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용시설이 없어 기존의 공간을 활용(56.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교류시설은 있으나 세대교류만을 위한 전용공간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28.1%로 나타났다. 세대교류를 위한 시설이 있고 전용공간도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2개소만으로 조사되었다(표 12).

[표 12] 세대교류를 위한 전용공간의 유무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시설이 없어 기존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음	36	56.3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시설이 있지만, 전용공간은 없음	18	28.1
둘 다 없음	8	12.5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시설이 있고, 전용공간도 설치되어 있음	2	3.1
합계	64	100.0

3) 세대교류 전용공간의 필요성 여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용공간이 필요하다(43.8%)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31.3%)와 불필요하다는 응답(25.0%)의 순이었다(표 13).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공간의 필요 및 불필요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전용공간이 불필요하다고 한 기관은 전체 64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었는데,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기존 프로그램실의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의견(37.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12.5%), 전용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

다(12.5%)는 의견 등이 있었다(표 14).

[표 13] 전용공간의 필요성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전용공간은 필요하다	28	43.8
전용공간은 불필요하다	16	25.0
잘 모르겠다	20	31.3
합계	64	100.0

[표 14] 전용공간의 불필요 이유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기존 프로그램실 활용으로 충분함	6	37.5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지 않음	2	12.5
전용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음	2	12.5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타 프로그램실도 부족함	2	12.5
공간창출보다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개발이 더욱 중요함	1	6.3
세대통합 프로그램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	1	6.3
전용공간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효과적임	1	6.3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함	1	6.3
합계	16	100.0

만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28개 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대 간에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함(32.1%), 프로그램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가능함(21.4%) 등의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전용공간 필요 이유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효과적임	11	39.3
세대 간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함	9	32.1
프로그램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가능함	6	21.4
장소 이동으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	7.1
합계	28	100.0

4) 요구되는 세대교류 전용공간의 형태와 마련 방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장 요구되는 공간의 형태를 알아본 결과, 응답기관의 57.1%가 학습공간(강의실, 도서관, 시청각실, 취미활동, 특별활동실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공간(21.4%), 모임공간 및 휴식공간

이 각각 10.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16).

[표 16] 요구되는 세대교류 전용공간의 형태

구 분	기관수 (개소)	비율 (%)
학습 공간(강의실, 도서관, 시청각실, 취미활동, 특별활동실 등)	16	57.1
문화 공간(전시관, 음악실 등)	6	21.4
휴식공간(휴게실, 산책로 등)	3	10.7
모임 공간(강당, 회의실)	3	10.7
체육 공간(체육관, 수영장 등)	-	-
합계	28	100.0

이를 위한 공간 마련 방법으로 과반수가 현 복지관 내 공간의 재배치 혹은 리모델링을 선호하였고(50.0%), 다음으로 현 복지관의 외부공간(공용 테라스, 텃밭 등)의 활용(28.6%),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타 기관(어린이집, 학교, 관련 복지시설 등)의 장소 활용(21.4%)의 순이었다(표 17).

[표 17] 세대교류 전용공간의 마련 방법

구 분	기관수 (개소)	비율 (%)
현 복지관 내 공간의 재배치 혹은 리모델링으로 확보	14	50.0
현 복지관의 외부 공간(공용 테라스, 텃밭 등)을 활용하여 공간 창출	8	28.6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타 기관(어린이집, 학교, 관련 복지시설 등)의 장소 활용	6	21.4
합계	28	100.0

2.4. 복지관의 세대교류 현황 소결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복지관 내 세대교류 공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복지관의 비율(65.6%)이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크게 노인일자리사업과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 2) 조사대상 기관은 대부분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실행 예산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세대교류를 위한 복지시설의 공간환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외에 1·3세대의 접촉과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기관 대부분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3. 복지관의 세대교류 공간 현황

3.1. 방문조사대상 기관의 개요

조사대상기관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중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3개소를 선별하여 방문·조사하였다. 그러나 현장 방문한 결과 3개의 복지관에서의 세대교류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복지관은 아니나 경기도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세대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진 용인시 노블카운티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총 네 곳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복지시설에서 세대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세대교류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표 18] 방문조사기관의 개요

시설명	보육·아동시설	위치	개관 년도	건물 규모	비고
	노인시설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어린이집	오산 시	2007	지상4층 지하1층	
	노인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				
2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성모어린이집	고양 시	2003	지상4층 지하1층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광명 시	2005	지상6층 지하4층	스포츠센터 지상5.6층, 지하1.2층
	광명어르신보호센터				
4 노블카운티	삼성어린이집	용인 시	2001	지상4층 지하4층	시설 분산
	타워동 / 너싱홈			타워동 20층 너싱홈 지상 7층	

3.2.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세대교류 공간 현황

1) 시설구성 현황

오산남부복지관은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노인지회 공간과 청소년 문화시설, 3층에 노인주간보호시설과 프로그램실, 사무실, 4층에 대강당과 식당이 있다. 어린이집과 청소년 문화시설은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독립되어 있고, 다른 시설들은 복지관 1층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2)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3층의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치매, 중풍, 뇌졸중 환자 약 20명이 이용하는데 생일잔치 등 행사시에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특별한 교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관과 청소년문화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각 시설들 간에는 밀접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족봉사단

과 노인을 농장운영을 매개체로 묶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이 아동시설에서 청소를 하거나, 동화 구연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3) 세대교류 공간 현황

4층 강당은 재롱잔치와 같은 어린이집 행사, 5월 가정의 날의 경로잔치 등에 이용되고 있다. 경로잔치는 복지관 이용자와 무료급식 대상자, 2층에 있는 노인지회의 노인 등 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이 된다. 강당은 행사시에만 이용되고 있으며, 세대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층 노인주간보호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아들이 어버이날, 경로의 날 등에 방문한다.

1층의 어린이집은 내부 공간이 넓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집 특성 상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원해 출입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3층의 언어치료실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표 19]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구성 및 교류활동

구분	실명	교류활동
4층	대강당, 식당	강당에서 어린이집 행사, 경로의 날 행사 있으나 세대교류 없음
3층	노인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실, 사무실	어린이집 유아들이 어버이날 등에 노인주간보호시설 방문
2층	노인지회, 청소년 문화시설	-
1층	어린이집	-

3.3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세대교류 공간 현황

1) 시설구성 현황

1층에는 식당과 북카페, 2층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사무실, 3층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프로그램실, 4층에는 대강당과 프로그램실 일부가 있다. 1층에는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어린이집이 병설되어 있으며, 다른 시설은 복지관과 출입구를 공유하고 있다.

2)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3층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이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퇴직교사가 자원봉사로 아이들 학습보조를 해주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각 지역 경로당과 주간보호시설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봉사를 하고 있다.

3) 세대교류 공간 현황

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1·3세대 교류는 복지관 뒤편에 위치한 텃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들이 주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씨 뿌릴

때와 수확할 때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의 사고타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20]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구성 및 교류활동

구분	실명	교류활동
4층	대강당, 프로그램실	-
3층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실	지역아동센터에서 간식, 학습보조(노인일자리사업)
2층	노인주간보호시설, 사무실	청소년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에게 발맞사지 봉사
1층	식당, 북카페, 어린이집	텃밭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재가노인이 교류

3.4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세대교류 공간 현황

1) 시설구성 현황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1~4층에 복지관이 위치하며, 지상 5, 6층과 지하 1, 2층에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1층에는 사무실과 대강당, 2층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식당, 지역아동센터 등이 위치한다. 3층에는 프로그램실, 어린이 도서실,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 일자리인 나눔터가 있는데, 나눔터는 어린이도서실을 통해 출입한다. 4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있다.

2)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30명 정도의 노인이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이나 관내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인 강사들은 한자, 구연동화,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관에서는 그들을 모니터링하고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1년에 1~2번 쓰레기 줍기, 식물관찰 등 자연보호활동을 함으로써 세대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구성 및 교류활동

구분	실명	교류활동
5, 6층	스포츠센터	-
4층	프로그램실	-
3층	프로그램실, 어린이 도서실, 나눔터	어린이도서실과 나눔터에서 세대교류(실버강사와 학생들) 프로그램실에서 실버강사와 학생들의 교류
2층	노인주간보호센터, 식당, 지역아동센터	-
1층	사무실, 대강당	대강당에서 노인잔치(인근 어린이집 공연), 1층 로비에서 산타행사
B1, B2	스포츠센터 수영장	-

3) 세대교류 공간 현황

광명복지관도 세대교류 공간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 3층에 인접 위치한 어린이도서관과 나눔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곳에서 세대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버강사의 수업이 끝난 후에 나눔터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며, 어린이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복도에 서도 노인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층 대강당에서는 5월과 10월에 노인잔치가 열리는데, 이때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 크리스마스 때는 봉사단 노인들이 1층 로비에서 산타행사를 열어 이용자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 그 외 1층 대강당에서는 대규모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한편, 3층 강당에서는 신체활동이나 영상을 통한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 수화봉사나 사물놀이 등으로 노인들이 봉사를 하는 경우 아이들이 관람하여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3.5. 삼성노블카운티의 세대교류 공간 현황

1) 시설구성 현황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는 입주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타워동은 건강한 입주자들이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서비스 시설인 너싱홈은 중풍 치매 등 노년기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서비스와 24시간 간호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계 초부터 노블카운티는 세대교류를 고려하여 1~3세대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타운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즉, 스포츠센터와 문화센터에 2세대가 참여하고, 어린이집에 3세대가 와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운영 컨셉 중 하나이다.

2)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너싱홈의 여가문화팀 세대교류담당 사회복지사가 동호회활동, 나들이 프로그램 등 세대교류를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1) 너싱홈 노인들과의 교류

어린이집의 너싱홈 방문은 주 1회 30분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노래, 연극 등을 노인들에게 선보이고, 노인과 아이들이 짝이 되어 노래, 게임 등을 게임치료사의 레크리에이션 지도로 같이 한다. 너싱홈 방문을 위한 준비 1단계는 아이들이 너싱홈 시설을 먼저 참관하고, 그 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에게 휠체어 교육, 노인에 대한 교육 등을 1-2주 정도 진행한다. 그 이후 실제 노인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노래 불러주기, 율동, 게임 등을 한다. 시설 방문 후에는 아이들의 그림 등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너싱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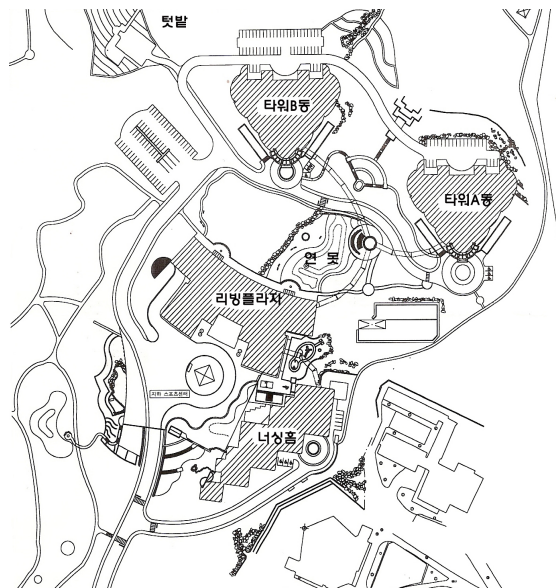
노인들의 원예, 미술치료활동에도 아이들이 참여하여 노인에게 대한 배려와 노인들의 다양한 특성을 배우으로써 자신들의 노년상도 키우게 된다.

(2) 타워동 노인들과의 교류

어린이집 행사에 타워동 노인들을 초대하거나 노인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 모습을 보고 격려도 하며, 사진동호회 노인들은 사진을 찍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이벤트 계획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특정한 날에는 어린이집과 타워동에서 서로 식사에 초대하기도 한다. 연초에 사회복지사가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할 노인을 모집하여 아이와 짝꿍을 맺는데, 결연을 맺은 노인들은 산책로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자기와 결연을 맺은 아이들을 찾기도 하고 과자, 짬뽕돈을 건네주기도 한다. 동호회에 속한 노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한다.

(3) 친조부모와의 교류

친조부모와도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갖는데 함께 체육을 하거나, 떡 만들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을 하고 있다.



[그림 3] 노블카운티 배치도

3) 세대교류 공간 현황

(1) 너싱홈 노인들과의 세대교류 공간

너싱홈 노인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 및 이동 통로는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는 어린이집이 있는 리빙플라자 건물을 나와 산책로를 통해 너싱홈 1층 홀로 가는 방법이다. 너싱홈은 언덕에 위치하여 다양한 레벨에서 진입이 가능한데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나와 1층 산책로 중간을 통해 진입하면 너싱홈 5층의 식당으로 연결되는데, 이곳에서 원예활동, 화전 만들기 등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캐스케이드 쪽 산책로를 통해 너싱홈 3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너싱홈 1층 홀에서는 주 1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너싱홈 1층에 위치한 음악, 미술 치료실에서는 공예활동을 하며, 너싱홈 5층 식당에서는 화전 만들기 등 요리활동도 한다.

(2) 타워동 노인들과의 세대교류 공간

타워동으로는 어린이집에서 같은 건물 4층으로 이동하여 브리지를 통해 갈 수 있다. 이곳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야하므로 우천 시만 이용하고 있다. 타워동 노인들은 어린이집의 교실에 와서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고 책 읽어주기를 하며, 초대되어 노래를 듣기도 한다. 리빙플라자 2층의 활동실 및 세미나실에서 공작활동, 게임 등이 이루어지며, 스포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탁구 등의 동호회활동의 경기 응원에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3층의 문화센터, 동호회 활동실에서 장구, 에어로빅 등을 구경하기도 하고, 1층의 전시공간과 2층의 홀 전시에서 전시를 관람하기도 한다.

(3) 옥외공간에서의 세대교류

노블카운티 노인들의 생활패턴은 대개 일정하여 해가 지기 전 오후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 때 단지 내 산책로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놀게 된다. 타워동 노인들은 텃밭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세대교류를 한다. 세대간 교류 장소로는 노인과 아이들이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뒤편 텃밭, 단지 내 산책로 등이다. 단지 북쪽에 위치한 연못이 있는 산책로, 잔디광장 등에서 만나기도 한다.

4. 복지관 세대교류 현황에 대한 고찰

4.1. 세대통합 프로그램

1) 복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특성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는 크게 노인일자리사업과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프로그램에 가까우며,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자를 보면, 복지관 내부의 시설이용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세대 참가자는 복지관 이용자이지만, 교류하게 되는 3세대들은 대부분 외부 시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의 경우, 3세대는 대부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중고생이고, 1세대 대상자들은 독거노인 등 재가노인인 경우가 많다.

2)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기획교류

세대교류에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직접교류'와 시각이나 청각 등을 통한 '간접교류'가 있다. '직접교류'는 교류의 의도성의 유무에 따라 '기획교류'와 '자주적 교류'로 구분할 수 있고, '자주적 교류'는 자연적 만남에 의한 '우발교류'와

우발성 없이 능동적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교류'로 구분된다(박혜선, 2008:138). 기획교류는 세대 간에 자주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은 기획교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와 3세대를 일대일로 세대교류를 지원하는 기획교류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일대다의 대응으로 개별적인 세대교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의 경우는 1세대와 3세대의 1대 1 혹은 1세대와 2·3세대의 1대 2 대응의 교류가 이루어지나, 봉사활동의 의미가 교류의 의미보다 강하다.

3) 복지관 이용자와 세대통합 프로그램

복지관 내의 노인시설과 보육·아동시설 간에 이루어지는 세대교류 프로그램은 절기행사 관련 일회성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⁵⁾. 따라서 복지관 내 세대교류 대상시설 간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획교류의 성격을 갖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교류는 일정 공간을 통해 접촉빈도가 늘어나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대상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복지관에 위치한 1세대가 이용하는 시설과 2·3세대의 이용시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복지관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면 보다 활발한 세대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2. 복지관의 세대교류 공간

1)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시 장소

복지관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는 반드시 복지관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실제 노인과 3세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은 복지관 내부 보다는 외부의 아동시설이나 학교가 된다.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복지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2) 복지관 내 세대교류 발생 장소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세대교류가 일어나는 경우 외에 복지관 내에서 자주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복지관 내에서 그다지 많은 교류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기획교류의 장소와 자주적 교류의 장소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자주적 교류는 우발교류와 자발교류에 의해 활성화되며, 직접교류는 이러한 자주적 교류와 기획

5) 박혜선(2008)의 연구에 의하면, 복지관 내 노인시설과 유아동시설 간의 기획교류는 종류와 빈도를 조사했을 때 절기위주의 행사교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교류에 의해 완성된다. 자주적 교류는 주로 복지관 출입구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발교류에 의해 자연스러운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세대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노인들의 동선과 아이들의 동선이 겹치도록 계획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세대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대교류 공간 계획

복지관 내부에 자주적으로 세대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 계획 당초부터 의도되었거나 추후에 공간이 마련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조사대상기관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할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44% 정도만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간 접촉기회를 증대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세대교류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서로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으며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설계되어야 한다. 즉, 1·3세대 시설이 서로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배치되고 세대교류를 위해 두 시설이 공유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갖춘다면 세대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복지관 내 세대교류 공간 현황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으며, 세대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지관 세대교류 프로그램과 공간계획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은 복지관 이용자가 아니라 대부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교류가 지속성을 갖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복지관 내 시설 이용자가 세대교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세대교류 활성화에 유리하다. 즉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와 시설 이용자가 일치해야 세대교류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 2) 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취업프로그램의 성격을,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은 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복지관 이용자의 세대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획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3)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아울러 복지관에 위치한 1세대 이용시설과 2·3세대 이용시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복지관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는 복지관 내 강당 등의 대규모 공간 외에 외부의 교육시설이나 체험이 가능한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세대교류 프로그램, 즉 기획교류가 지원되고, 우발적 혹은 자발적으로 세대교류가 발생하도록 복지관 내에 1·3세대 시설을 서로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세대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유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한다면 세대교류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세대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어린이의 숫자는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대교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설립된 복지시설들은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을 분리하여 설계하였거나, 혹은 같은 대지위에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현장의 실무자들은 세대교류 공간의 부족함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세대교류에 미치는 공간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삼성노블카운티의 경우에서 보듯이, 운영주체가 세대교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과 더불어 세대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설계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세대교류 및 효율적인 세대교류를 위한 공간설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박혜선 :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5권 3호, 2009, pp.51-59
2. 박혜선, 박영기 : “종합사회복지관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9호, 2008, pp.133-143
3. 석은조, 김병곤(2009), “유치원에서의 노인-유아세대 간 교류 증진 방안 모색.”, 한국열린유아교육연구 14권 3호, pp.403-424
4. 안태윤, 서해정, 박혜선, 김명일 :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5. 한정란 : 교육노년학, 학지사, 2001
6. 한준상 외 : 세대간공동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부, 200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2008
8. 草野篤子, 秋山博介編 : 現代のエスプリ No.444 インタージェネレーション: コミュニティを育てる世代間交流, 至文堂, 2004
9. 幼老總合ケア研究會編 : 幼老總合ケア: “高齢者福祉”と“子育て”をつなぐケアの實踐と相乗効果, 黎明書房, 2006
10. 北村安樹子 :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異世代交流の取り組み-福祉

社會における幼老共生ケアの可能性”, Life Design REPORT, 2003,
pp.4-15

11. 北村安樹子 :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異世代交流の取り組み(2)-通
所”, Life Design REPORT, 2005, pp.4-15

접수 : 2012년 3월 29일
1차 심사 완료 : 2012년 0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05월 08일
3인 익명 심사 필